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장한*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의 동쪽인 매니토바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당하고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자판기가 층층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유니온 건물은 오롯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보통의 학교처럼 학생들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다.
수업	수업내용은 주로 밴쿠버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었으며 밴쿠버의 문화, 밴쿠버의 역사, 캐나다와 다른 나라 간의 문화 차이 등 전반적으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었다. 수업 방법은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끌고 학생들이 따라가는 식이었다. 다만,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화를 주고 받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조를 구성하여 그룹별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협동하는 활동이 많았다. 반은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실력에 따라 반이 나누어졌으며 같은 국적을 가진 학생들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식은 없었다. 수업 방식은 빔 프로젝터와 칠판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내가 속했던 반의 경우 다른 반에 비해 과제의 양이 많긴 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았다. 과제 역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 대부분 이었다. 수업을 가기 전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없지만 수업에는 항상 학교 자체에서 제작한 바인더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같은 것이다. 무엇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가볍고 흥미 유발이 쉬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Activity	<p>카약킹, 아쿠아리움, 휘슬러 투어, 밴쿠버 박물관 방문 등의 활동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카약킹 시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따갑고 강렬하므로 선크림과 모자가 필수 적이고 조금 덥지만 긴팔과 긴바지를 입는 것을 추천한다. 휘슬러 투어시에도 역시 긴팔과 긴바지 모자, 선글라스 등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산의 높은 지점은 기온이 낮으므로 두꺼운 옷을 같이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액티비티가 진행되는 동안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지만 자신의 점심의 준비가 안되었다는 등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돈이 필요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보다는 그 곳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원래의 밴쿠버는 8월에 비도 오고 흐린 날씨가 많은데 이번 파견 때는 약간의 이상기후로 파견 내내 날씨가 쾌청하고 자외선이 강한 편이었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등이 필수적이며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상당히 자주 취해 주어야 한다.</p>
안전	<p>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우는 없었다. 자신이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p>
숙소	<p>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홈스테이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홍콩출신인 홈스테이 어머니 덕분에 쌀로 된 요리를 많이 먹을 수 있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시는 친절함 덕분에 불편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었다. 복잡한 규칙 같은 것은 없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는 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p> <p>홈스테이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매우 만족했으나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외부 음식을 많이 먹었다. 밖에서 먹을 때는 쌀로 된 음식들을 주로 선호해서 일식을 주로 먹곤 했다. 현지에서의 한국 음식은 상당히 고가 였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기 어려웠다.</p>

교통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는 2개의 버스를 이용하였다. 약간의 도보와 두 개의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은 25~30분 정도였다.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캐나다 지하철인 스카이 트레인 과 버스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노선이 넓게 퍼져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하지만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의 경우 학교 주변을 지나다니는 버스의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오전 시간 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운행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지나가는 노선보다 다른 노선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 (나이트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버스번호 앞에 "N"이 붙어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800,000원	가방, 시계, 화장품, 옷 등
기념품	75,000원	메이플 쿠키, 메이플 시럽 등
식사비	250,000원	
자전거 대여료 및 놀이동산 입장료	60,000원	P.N.E 자유이용권 및 입장권
교통료	13,000원	COMPASS 충전
합계	2,909,2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미리 날씨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옷들을 잘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평소 집에서 먹던 약들을 미리 챙겨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길을 헤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경험한 외국에서의 어학연수여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막상 가보니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른 점도 없었고 다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었다. 한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문화를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낯설지만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그것이 장벽이 되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또다른 배움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다. 수업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밴쿠버에서의 생활 또한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유명한 명소 여러 곳도 가보고 현지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으면서 밴쿠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같이 공유해볼 수 있었다. 공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여행 하는 것도 배움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낯선 장소가 주는 흥미로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남아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인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가서 캠퍼스 구경도 하고 그곳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둘러 보았다. 규모가 커서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았다. 모든 강의 건물을 들어가보진 못했지만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 가 본 것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이 느껴졌다. 잠시나마 이 곳의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액티비티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벤쿠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박물관 전시품들 앞은 아니지만 박물관 내의 한 공간이다. 풍경이 좋아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벤쿠버의 역사를 전시해놓은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박물관에 비해 볼거리가 다양하고 주제가 다양해서 박물관을 둘러 보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이 아닌 체험관에 가까운 곳이었다. 전시품들을 만져 볼 수도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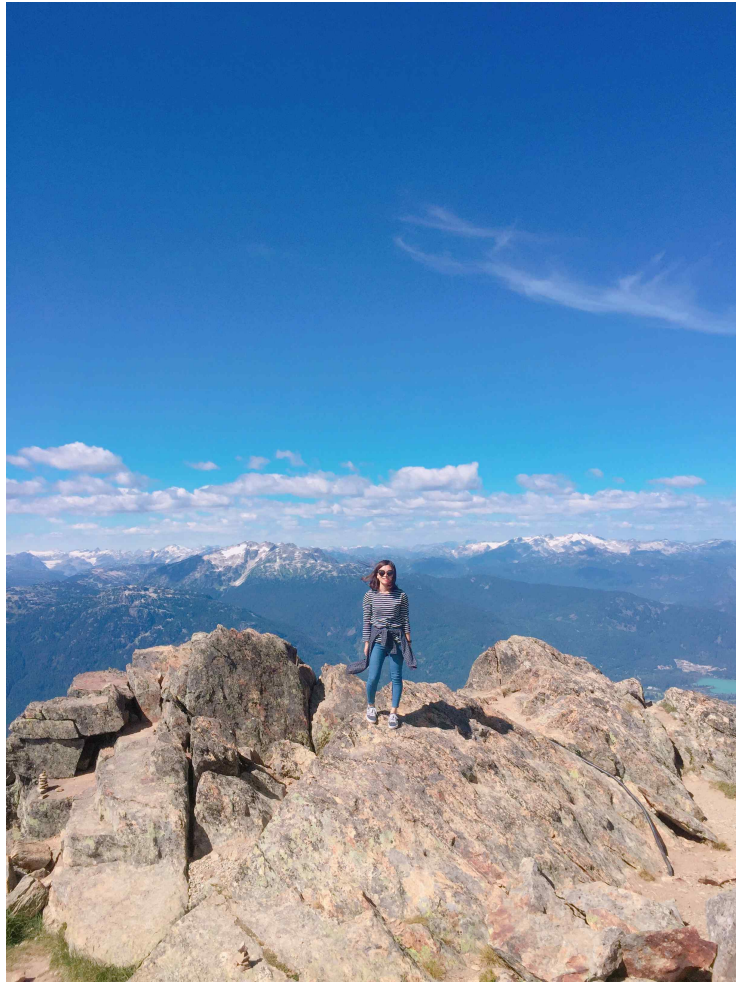
벤쿠버의 관광 명소인 잉글리시 베이로 방문해 찍은 사진이다. 도심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좋은 곳이다. 이 곳에서 일몰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도 좋고 평화로워서 여유를 느끼기 좋은 해변이다. 벤쿠버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잉글리시 베이를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장소였다.



밴쿠버에 있는 유일한 놀이공원인 PACIFIC NATIONAL EXHIBITION에 가서 찍은 사진이다. 놀이공원의 초입에 전시 되어 있는 장식품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의 놀이공원처럼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한국만큼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짧고 속도감도 굉장해서 익스트림을 즐기는 성격이라면 한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있는 갤러리에 피카소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피카소 이외에 캐나다의 유명한 두 작가의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피카소의 전시회는 가본 적이 없어 어떠한 배경지식도 없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어 작품 해석을 일일이 읽어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괜찮은 취미를 하나 얻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휘슬러 정상에 올라 주변을 둘러 보다가 암벽 등산로로 내려가 하이킹도 즐길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높은 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없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막상 올라가보니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에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주변에는 만년설도 있었고 제 각각으로 생긴 기암괴석들이 풍경과 잘 어울렸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이 곳은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벤쿠버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었다.